

교수·학생단체 “정부, 고등교육 재정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증액 촉구 강사 처우 개선 예산 확보 요구 기본역량진단 폐기 수준 재고 제안

대학가에서 교육부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증액과 대학 재정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차별적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기 수준에서 전면 재고하라는 제안도 나온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대학가 6개 교수·학생 단체는 2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증액예산 국회 통과와 대학 재정정책을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증액 예산 반드시 통과해야”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참여를 신청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총 285개교 중 일반대학 136곳과 전문대 97곳 등을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미선정된 52개



사진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대학강사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예산을 확보해 달라”며 지난 5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메트로신문 DB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대학 당국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교수, 직원들의 단체행동도 계속됐다.

이들 단체들도 교육부 발표 이후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제외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대상 전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 중 50%인 27개 대학에 대해 1210억의 예산을 증액 배정했다. 수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1년 대학 기본역

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52개교 가운데 절반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년제는 평균 50억원, 전문대학은 평균 40억원을 받는다. 현재 예결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남겨 둔 상태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 “차별적 재정지원을 골간으로 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재정 지원정책은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해당 정책을 폐기 수준에서 전면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학들이 재정적 위기에 봉착한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대학

기본역량진단 증액 예산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미선정된 모든 대학을 지원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탈락 대학 절반이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위의 예산배정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사 처우 개선 예산 확보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교수노조 등은 사립대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 역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수들은 “2019년 8월 강사법이 시행된 이후 대학 강사들은 3년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받고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받고 있다”며 “내년 강사 재임용 절차 보장 3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학들은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재정감소분을 강사 해고로 메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방학 기간 중 단 2주분만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과 주당 5시간 이상 강의해야 보장되는 퇴직금 때문에 강사를 해고하는 대학들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며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을 우선 복원해 내년엔 벌어들인 대환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에 대한 대학 현장의 저항은 대학 대상 국가 재정지원이 평가를 통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 정책이 안고 있는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며 “대학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정부 고등교육 재정 정책 역시 현재 상황에 맞게 전면 재설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회원국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교수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나라가 각 부문에서 세계 ‘TOP10(톱텐)’ 국가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하지만, 고등교육 예산투여는 OECD회원국 평균인 GDP 1%에 턱도 없이 모자란 0.6%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OECD 상위 20개국 평균인 GDP 1.2% 이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내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교육부-한국장학재단

2022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 개선

내년부터는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24일 9시부터 12월30일 18시까지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2022년 기준 월 512만1080원) 200%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하고,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 신·편입생과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인 12월30일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10일 18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한다. 신청 마감일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은 2022년도부터는 시민과 중산층까지 지급 대상자를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학자금지원 5~6구간은 연 390만원, 7~8구간은 연 350만원으로 지

원 단가를 높이고,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게는 소득·재산 조사 시에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정부는 학자금지원구간이 9구간 이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II유형을 개선하고 교내외 장학금을 지원해 등록금 부담이 완화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세부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 상담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윤병국 사이버대학 대학원장협의회 초대회장(경희사이버대학 대학원장, 아래 오른쪽)과 한지연 부회장(대구사이버대학 대학원장), 김영철 원대협 사무국장(윗줄 왼쪽 네번째)이 22일 영진사이버대에서 열린 사이버대학 대학원장협의회 창립총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원대협

원격대학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윤병국 경희사이버대학원장 초대 회장 선출

한지연 대구사이버대학원장 부회장

윤병국 경희사이버대 대학원장이 사이버대학 대학원장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 21개 사이버대학 운영 협의회체인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지난 22일 영진사이버대 서울학술관에서 ‘사이버대학대학원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경희사이버대 대학원장인 윤병국 교수가 만장일치로 초대 사이버대 대학원장

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부회장으로는 대구사이버대학원 한지연 대학원장이 선출됐다.

신임 윤병국 회장은 “온라인 고등교육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시점에서 10년의 온라인 석사과정운영의 노하우로 대한민국 온라인 고등교육의 참된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 사이버대학원 과정의 고도화 역할과 추후 박사과정 개설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취임사와 함께 포부를 밝혔다.

/이현진 기자

성균관대-키스트 과학기술 인재 양성 맞손

인력교류·융합연구 학연협력 협정

성균관대학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22일 오전 10시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제1회의실에서 학연교수 및 융합연구 학연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양 기관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SKKU-KIST 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우수연구인력 교류 촉진 학연교수 운영 ▲KIST-SKKU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통한 공동

융합연구 추진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동렬 성균관대 총장은 “첨단소재 및 에너지기반 연구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두 기관이 공동융합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선도적 학연모델을 구축해 운영함으로써, 혁신적인 연구성과와 우수 인재 양성의 큰 결실을 내딛게 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윤석진 KIST 원장도 “범지구적 화두인 탄소중립 문제에 있어 양 기관이 공동융합연구사업 수행을 통해 우수한 인



신동렬 성균관대 총장(왼쪽)과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22일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제1회의실에서 학연교수 및 융합연구 학연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성균관대

력과 데이터를 융합·분석하고 수월성 높은 연구 성과와 차별화된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국민대, ‘지금 여기 休’ 관람 지원

춘천박물관 콘텐츠 진흥 상호 협력

춘천박물관의 고해상도 영상 ‘지금 여기 休(휴), 한국인의 이상향’을 국민대에서 볼 수 있게 됐다.

국민대학교는 국립춘천박물관과 22일 오후 국민대 본부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

번 업무 협약을 통하여 향후 문화 콘텐츠 진흥 및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금 여기 休(휴), 한국인의 이상향’ 영상은 국민대 본부관 1층에 위치한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